

오리전염성 간염 가축전염병에 포함

오리민간비축사업 추진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안) 고시

오리고기 수입량 또다시 크게 증가

문제가 된 중국산 가금육
반송폐기실적 전무

영산강식품 오rido축장 준공예정

오리전염성 간염 가축전염병에 포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종합 관리된다.

농림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2조 2항 2호 규정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의거 시행규칙 제1조의 2 기타 제2종가축전염병에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을 추가로 가축전염성질병으로 지정했다.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및 오리바이러스성장염이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법 제3조의 2에서 근거하여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전염

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투약, 이동 제한, 가축사육시설의 소독, 차단 및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관한 예찰, 발생 실태조사 등 가축 방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오리민간비축사업 추진

비수기에 출하되는 육용오리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통하여 오리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기 위한 오리민간비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9월3일 오리가격안정을 위한 민간비축사업을 시달하고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오리가격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시달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오리민간비축사업의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오리수매는 오리가격이 경영비 수준을 밑돌 때 비축을 시작하여 생산비 수준을 웃돌 때 비축을 중단하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0까지 2달에 걸쳐 실시된다.

사업지원대상자는 오리비축을 희망하는 육가공업체로 한국오리협회장이 신청을 받아 농림부에 추천하여 선정되며 구매 하한가격은 수당 3천3백원, 구매장소는 비축대상 오리가공업체로 수당 지원대상자별 용자한도는 수당 3천3백원(경영비의 90%)이다. 비축판매조건은 지원대상자가 전년 월평균 도축마리수 이상 오리를 구매 가공하고 비축자금 배정 물량분의 오리를 9월1일 이후에 추가로 구매 가공하여 6개월간 비축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용자조건은 연리 3%, 1년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기지역 2개소(양평산오리, 풍농식품), 전북1개소(혜성농산), 전남 3개소(화인코리아, 다솔영농조합, 민영농산), 경남지역 1개소(세원식품) 등이다.

사업대상자별 비축계획은 양평산오리, 혜성농산, 민영축산, 세원식품 등이 각각 1억2천만원의 자금이 배정돼 업체별로 3만6천수의 오리를 수매비축하고 화인코리아는 3억4천2백만원

에 10만4천수, 다솔영농조합은 2억2천1백만원에 6만8천수 등 총 10억7천3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돼 32만5천수의 오리가 2달에 걸쳐 수매 비축된다.

유해사료 범위와 기준(안) 고시

앞으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여 가축에 급여하는 경우 반드시 가열처리하여야 하며 반가축에는 급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3월28일 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안)을 제정하여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기준안은 사료 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과 사료사용제한물질로 생배설물, 장내용물, 치료후 적출물, 가죽과 피혁가공 부산물, 파종을 목적으로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종자 또는 그 부산물, 목재보호제를 처리한 나무 또는 톱밥,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비닐 등 농업용 포장재 등이다.

또 동물 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의 종류를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동물은 광우병 관련

소, 사슴, 산양, 면양 등 반추동물로 하고 법 제 13조 제1항 제7호의 동물 등의 부산물, 남은 음식물이라 함은 동물성 단백질류로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모발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수지박, 육즙흡착사료, 도축부산물 등등이며 동물성 무기물에는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이 포함된 골분, 골회, 패분과 이같은 사료가 포함된 배합사료, 남은 음식물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이같은 동물 등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은 반추동물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사료를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 등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100도씨에서 30분이상에서 가열, 처리하여야 하고 다만 돼지사료 또는 이 사료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오리고기 수입량 또다시 크게 증가

오리고기 수입량이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집계한 8월 오리고기 수입검역실적에 따르면 8월 오리고기 고기 수입량은 총 66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입량은 전월 275톤에 비해 241% 증가한 양이며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국별로는 중국이 551톤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됐고 태국이 105톤, 미국 8.3톤 등이다.

금액상으로는 총 89만7천9백81달러 어치가 수입되었으며 중국이 67만4천7백35달러, 태국이 19만7천9백34달러, 미국이 2만5천3백12달러 등이다.

이와 같이 오리고기 수입량이 국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수입됐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예년의 경우 국내 경기가 위축되어 산지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수입량은 크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었다.

문제가 된 중국산 가금육 반송폐기실적 전무

지난 6월4일 가금인플루엔자 병원균 검출에 의해 문제가 된 중국산 오리고기 1천여톤이 전혀 반송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산강식품 오리도축장 준공예정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중국산 가금육 수입을 중단 조치하면서 문제가 된 가금육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토록 한바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가금육 중 지금까지 중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된 물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회는 지난 7월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반송물량 및 폐기 조치된 물량에 대하여 협조공문을 보낸바 있으나 지금까지 회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회는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는 지난 6월 수입중단조치 이후 발표된 물량 중 큰 변동사항이 없어 회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초 중국산 가금육 수입중단조치 이후 반송 회수토록 한 정부의 조치 이후 전혀 반송이나 폐기된 물량이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남 영암에서 오리계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식품(대표 엄인호)이 오리전용도축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식품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내에 시간당 1천5백수의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현대화된 도축장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23억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영산강식품은 9월중으로 도축장 착공식을 가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엄대표는 오리전용도축장이 준공되면 지금보다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다 도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결과적으로 보다 저렴한 오리고기 생산에 의해 시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